

interview 영문불교개론서 낸 중매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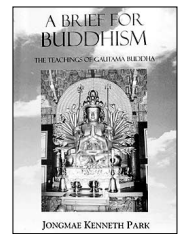
10여년전부터 준비 다섯번 고쳐 완성

“불교를 배우는 외국인들이 제대로 된 불교개론서를 읽으면 하는 마음에서 10년전부터 준비해온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보광사 주지 중매 스님(사진)이 최근 영문 불교개론서 (A BRIEF FOR BUDDHISM)를 발간했다.

현재 마땅한 영문 불교개론서가 없는 상황에서 발간된 이 책은 미국의 일반대학이나 불교대학에서 불교개론서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지난해 독일어판을 펴낸 스님의 불교개론서는 독일 하이델베르크대학에서 불교학 교과서로 사용되고 있다.

“불교를 모르는 초심자들이 보는 책인 만큼 경용론을 쉽게 해설하는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처음 3년동안 오스트리아 비엔나 죽림원에서 1차 원고를 작성한 뒤 문장을 간결하게 하기 위해 5번이나 새로 고쳐 썼습니다.”



원고 작성하려고 캘리포니아대 불교관장직도 물러나

스님은 1000여쪽에 이르는 초벌 원고를 1년동안 꼼꼼히 검토해 300여쪽으로 줄였다. 스님은 책 발간을 위해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학 불교관장직에서 사퇴했다.

“대학에 재직하며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좋은 기회였지만 미국뿐 아니라 유럽의 불교발전에 힘써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철저한 남녀평등주의자”라는 스님은 “이 개론서에서 불교가 신분뿐 아니라 성적으로도 철저한 평등을 강조한다는 점에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개론서의 주요내용은 고대인도의 정치적·지정학적 상황에서 출발하여 부처님의 탄생과 성장 그리고 출가까지 서술하고 있다. 또 불교교리, 남전과 북전 그리고 대승의 삼장, 남방상좌부의 위빠사나와 대승의 선교 수행법이 설명돼 있다. 마지막으로 불교와 현대사회, 불교와 정치 경제 여성 등에 관한 내용도 수록되어 있다.

책은 아마존닷컴(amazon.com)에서 'JONGMAE'를 검색하면 36달러에 구입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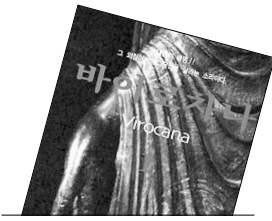
스님은 책 발간과 더불어 유럽의 중심인 오스트리아에 불교통신대학(BS)을 개설했다. 오스트리아정부에 종교학교로 공식 등록된 BS에는 현재 20여명의 유럽인들이 수강중이다. 1978년 군법사를 예편한 뒤 미국으로 출국한 중매 스님은 현재 미국 4군대 사찰을 비롯 캐나다 몬트리올, 태국 방콕, 오스트리아 비엔나, 독일 솔링엔 등에 10여곳의 사찰과 외국인 제자 10여명을 상좌로 두고 있다.

김원우 기자 wkim@buddhapia.com

당신을 살리는 절박한 외침

‘바이로차나!’

온세상 천지에 가득 차 있다



바이로차나 공파 스님 역해 맑은소리 맑은나라 | 1만원

고려시대를 살다 간 아운 스님의 자경문(自警文)을 풀어 해석한 책이 나왔다.

《바이로차나(Vairocana)》는 ‘온 세상 천지에 가득 차 있다’는 뜻의 산스크리트어다. 남방불교권을 넘나들며 다양한 불교적 체험을 하였고 평생을 경전 연구와 역해로 수행삼아 온 공파 스님(부산 원효센터 주지·사진)이 풀이했다. 공파 스님은 아운 스님이 얼음처럼 차갑게 당시 스스로를 경책했던 삶의 지표를 현대인들에게 걸맞은 쉽고 간결한 언어로 하나하나 풀어져 들려주고 있다. 《바이로차나》 1권에 이어 연작을 펴낼 계획이다.

아운 스님의 행적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것이 없다. 아운 스님에 대한 세속적인 자질구래한 기록이 없다는 것은 그

만큼 철저한 수행승으로 살았다는 말이다. “한 눈 팔지 말고 오로지 수행에만 매진하자”는 맹세의 글귀로 주옥같이 적어 내려간 자경문을 공파 스님의 날카로운 시선과 솔직한 글쓰기로 재조명해 놓고 있다.

《바이로차나》는 수행하는데 장애가 되는 열 가지 문제들을 세심히 짚어보고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모색해놓고 있다. 음식, 보시, 언어, 친구, 수면, 교만, 정욕, 세속, 대중, 처신 등 10가지의 항목으로 나눠 깨울거리는 자신을 끊임없이 되 돌아보면서 부처로 환원하는 길로 걸어 가도록 야무지게 다그치고 있다.

스스로를 불자라고 하면서도 부처님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먼 이들에게도 피할 수 없는 동등기를 날린다. 이 책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진정한 불자의 길에서 멀어져 있는 스스로를 돌아보며 한두 번쯤은 얼굴이 붉어질 각오를 해야 한다.



공파 스님, 고려 아운 스님의 자경문 풀어 써 참 불자의 길에서 벗어난 이들에게 일침

이미 <부처님의 유언> <극락세계 1, 2, 3> <천수경 원본경전> <원효전집> 전 6권을 역해한 공파 스님은 《바이로차나》에 수많은 경전속의 주옥같은 말씀들을 인용하며 중생의 좁은 소견을 버리고 부처의 세계로 나아가라고 등을 떠밀고 있다. 화엄경, 능엄경, 법화경, 금강경 등의 경전 내용을 일일이 인용, 이 시대 불교에서 자행되고 있는 비불교적인 형태들을 날카롭게 꼬집고 있다. 그 뿐 아니다.

공파 스님은 “우리는 근본 마음을 잃어버리고 아주 협소한 지엽적인 마음을 쓰고 있다”며 “이제 그 마음을 풀어주어 온 우주에 유포할 수 있게 이 마음을 살려 주어야 한다. 삼독으로 눌러 놓으면 죄업의 육신 속에 갇히지만, 바라밀로 싸우면 세사 천지에 가득 차 있게 된다”고 자신을 살리는 내면의 비명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고언하고 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수행자와 중문학자가 함께 쓴 금강경

부처님도 깨달음을 성취하기 이전에는 부모와 아내 그리고 아들이 있는 우리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보통 사람이었다. 그러나 늙은 이, 병든 이, 죽은 이, 수행하는 이 등을 보고 태자의 지위와 미래의 왕위를 포기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뒤로 하고 깨달음을 위해 출가한 것이다. 부처님은 열심히 정진하여 마침내 깨달음을 얻은 후에는 모든 존재들과는 다른 정각자가 되어 중생들에게 가르침을 줬으며, 천신들에게까지 존경받는 거룩한 분이 되었다.

부처님 가르침의 정수를 담는 노소 빈부귀천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전하는 경전이 《금강경》이다. 《금강경》은 복을 짓고 지혜를 닦으며 업장을 소멸시킬 수 있도록 가르치는 완벽한 경전이다.

《수행자와 중문학자가 함께 풀이한 금강경》은 태고종 중앙교육원장 수암 스님이 신문에 연재했던 내

용과 제주대 중문학과 안재철 교수가 가지고 있던 강의자료를 합친 것이다. 기본 교재는 구마라집(343~413) 삼장의 역본을 채택하고 금강경요해를 참고했다.

안재철 교수는 주로 한글번역과 문자, 문법해설을 담당하고, 수암 스님은 내용을 불교신행에 근접한 강의형식으로 풀어냄으로써 서로의 장점을 이 한 권에 오롯이 담아냈다.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고 해석의 관점이 다른 부분은 서로 의논하여 고치면서 정리해 정확한 번역과 문법풀이가 돋보인다. 그래서인지 그동안 나온 천편일률적인 금강경 번역과 풀이에서 벗어나 있다는 평이다.

아울러 230여 개에 이르는 상세한 주(註)도 금강경을 보다 깊고 넓게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주고 있다.

김원우 기자



금강경(수행자와 중문학자가 함께 풀이한) 수암스님 안재철 공저 운주사 | 1만5000원

불교미술 감상 키워드 ‘상징’

‘모나리자’를 보면서 레오나르도 다 빈치를 만나고, ‘절규’를 보면서 몽크를 몰래 훑쳐보기도 한다. 불교의 교리를 집약적으로 상징화하여 깨달음의 이상을 나타내는 불화도 마찬가지다. ‘불화’를 보면서 우리는 부처님을 만나고, 사상과 가르침을 좀 더 쉽고 재미있게 배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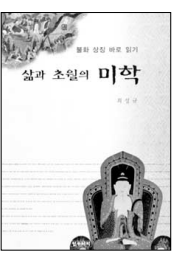
불화의 상징을 바로 읽는 것은 불교의 이해를 높이고 자신의 수행을 완성하는 지름길이다.

《삶과 초월의 미학》에는 인도에서부터 시작된 불교미술을 시작으로 무불상 시대의 불교미술, 간다라 불상, 마투라 불상, 중국의 돈황 불화까지 불교미술의 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다.

또 고려시대의 불화와 불교미술이 꽃핀 조선시대의 불화까지의 흐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불화를 이해하는 참고서로서의 활용도 가능하다. 탕화 벽화 등 여러 종류의 다양한 불화에 깊은 내용을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사진 혹은 그림과 함께 내용이 자세히 풀이 되어 있어, 보는 것을 뛰어 넘어 읽을 수 있도록 해준다.

저자 최성규씨는 경북대 미술학과와 동국대 교육대학원 석사, 위덕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동방대 교수를 역임했다. 현재는 위덕대 강사, 한국미술 이사, 환경미술협회 한국화 분과위원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삶과 초월의 미학 (불화 상징 바로 읽기) 최성규 지음 정유서적 | 1만2000원

만족 아는 이가 바로 부자

“물질의 부자 보다는 마음이 풍족해지는 부자가 되세요.”

군승(軍僧)이자 인터넷에서 생활수행 모임 ‘목탁소리(www.moktak소리.com)’에서 ‘아난스님’이란 이름으로도 유명한 법상 스님이 불교교리를 바탕으로 한 15가지 생활수행법을 소개한다.

스님은 부족하게 불편하게 살기, 미래를 걱정하지 말기,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남처럼 되려고 애쓰지 말기 등의 마음공부 수행법들을 명확히 제시한다. 또 ‘만족’의 덕목을 강조한다. 부(富)의 기준으로 행복을 재단하는 물질만능주의에 길들여지면 자신의 삶은 언제나 불만족스러운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일러준다. 그렇기에 수없이 많은 선택과 고민들의 연속인 현실의 삶에 감사하고 긍정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것을 권한다.

법상 스님은 동국대 불교학과와 동국대 대학원 불교학과를 졸업했으며, 서울 대성사 불심 도문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실천 근본불교 입문> <실천하는 수행자를 위한 반야심경 대강좌> 등의 책을 냈다.



부자보다는 잘 사는 사람이 되라 법상 스님 지음 도솔 | 9500원

yosiamun.com 추천도서

- 아름다운 절 아름다운 스님 이연정 외 공저, 1만2000원, 민족사
- 까말라살라의 수승차제연구 중앙목련 외 공저, 2만원, 불교시대사
- 부처와 꽃을 보러가다 스펜제 외 공저, 1만9000원, 비제
- 법성계 강의 석우스님, 1만3000원, 여래
- 부자보다는 잘 사는 사람이 되라 법상 스님, 9500원, 도솔

도서주문 (02)2004-8219

혜충스님이 전하는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의 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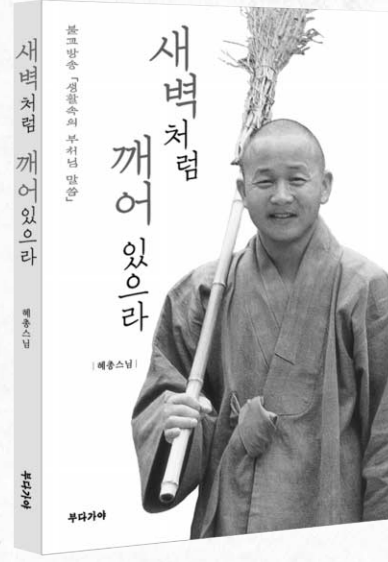


무소유의 행복 설법 '꽃도 너를 사랑하느냐'

이 글은 불자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교훈적이고 진솔한 이야기로 가득하다. 그리고 군더더기 없고 담백하고 깔끔한 문장이 잡은 참에 읽힌다. 내 자신도 늘 되돌아 보는 바이지만, 출가 수행자에게는 글 쓰는 일이 수행의 한 여가(余技)에 지나지 않는다. 수행자의 본업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착실한 중노릇이다. 스스로 깨어있고 이웃을 일깨우는 일이다.

-법정스님- (홍·정)

베스트셀러 순위 진입!! 유명서점 및 불교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



부처님 닮아가는 참다운 행복의 길

원고를 펼쳐보니 혜충스님의 자비로움과 지혜가 느껴진다. 길지 않은 글 편편에는 중생계가 일상으로 겪고 있는 온갖 갈애를 부처님의 말씀으로 시원하게 씻겨주는 내용으로 가득하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가산 지관 伽藍 智冠

순박하고 정직하게 사는 지혜 180가지

혜충스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줄의 모래가 바람에 날려 사라지듯 잠깐인 삶을 전부인양 울고 웃으며 살아가고 있다”며 “다만 한사람이라도 더 부처님이 계시게 높은 가르침의 거울 앞에서 자기를 반조해보는 계기를 갖게 되길 바란다”고 하였다.

-현대불교신문 기자 중에서-

11쇄 발행!! 3만여 독자님께 감사드립니다